

▶ 2002년도 닭고기 소비홍보용 포스터 배부  
3개월에 걸쳐 여성지 및 요리잡지에  
소비홍보광고 게재

▶ 제3차 닭고기 수출위원회 참석  
닭고기 수출 활성화 추진대책 논의

▶ 제3차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 개최  
닭고기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집중 논의

▶ 제4차 생산책임자회의 개최  
육계계열생산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논의

## 2002년도 닭고기 소비홍보용 포스터 배부 3개월에 걸쳐 여성지 및 요리잡지에 소비홍보광고 게재

본회(회장 김홍국)는 최근 돼지콜레라에 이어 구제역 발병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감소가 예상돼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닭고기 소비홍보용 포스터 1만부를 제작, 본회 회원사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배부된 포스터는 ▲국내산 닭고기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 ▲HACCP 및 품질보증마크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닭고기 판매업소(외식업소 포함)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6~8월까지 여성지 및 요리잡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HACCP 홍보 ▲브랜드 닭고기 홍보 ▲국내산과 수입육과의 차별화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해 닭고기 소비홍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제3차 닭고기 수출위원회 참석 닭고기 수출 활성화 추진대책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10일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닭고기 수출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수출위원회에서는 닭고기 수출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가졌다.

특히 닭고기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바이어들이 원산지 표시 강화와 가격문제로 닭고기 수입에 대해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산과 한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본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2.8kg 이상의 육계생산체계의 미흡 지적과 관련 하림이 하루 16만수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육계 생산공급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수출용 육계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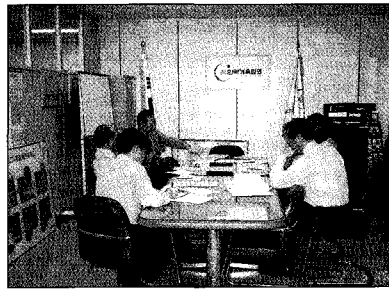
또한 닭고기 수출대책 각종 지원사업별 예산 반영에 대한 논의에서는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사업비의 경우 4월 12일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 검토반영을 요망키로 했으며, 육계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 지원사업을 우선 3월 7일 농림부 닭고기 수출대책반영 사업지원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했다.

그 밖에 오는 7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닭고기 시장개척단 모집 공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제3차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 개최 닭고기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2년도 제3차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주)하림 한성희 상무, (주)마니커 서대진 부사장, (주)체리부로 김안규 사장, 한강CM(주)홍응수 사장, 우인산업(주)이찬모 전무, (주)여맥 장덕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닭고기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현행 거래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현재 계열주체에 납품하는 병아리 가격 산정 등 병아리 거래 관행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병아리 수급안정대책 문제는 통합경영분과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건을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집중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2002년도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시 대응방안 및 시행령안, 시행규칙안과 가축방역지원본부 분담도 금액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통합경영분과위원들은 닭고기 자조금의 경우 닭고기 소비홍보 주체인 본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적인 입장을 내세웠으나, 대의원 선출 및 거출금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원사별로 자세한 검토 후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가축방역본부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육계질병방역을 위해 분담금을 각 회원사별로 할당 모금하되 육계질병 퇴치를 위

한 확실한 대책안 제시를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통합경영분과위는 병아리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유통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제4차 생산책임자회의 개최 육계계열생산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2002년 제4차 계열생산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총 8명의 생산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질병 및 수급에 대한 정보교환을 비롯 각 회원사별 신용불량 농가 공동대처 방안과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을 위한 병아리 수급대책 방안, 양계협회 표준계약서 검토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양계협회 표준계약서 건에 대해서는 본회와 양계협회 대표를 비롯 종계·부화업계, 사료업계 등 육계 분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품구를 결성하여 올바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있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자고 결정했다.

또한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을 위한 병아리 수급대책으로는 현재 병아리를 구매하고 있는 계열업체들이 단기·장기대책 마련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본회에서 각 회원사들의 병아리 필요물량을 파악,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계열업체들이 자체 종계장의 규모를 확대하여 필요물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C